

27일 Market Index			
	코스피		코스닥
	6912.37 (+104.16)		837.65 (+10.78)
	금리 (미국 9년)		환율 (원/달러)
	3.755 (-0.061)		1380.30 (-4.50)

HBM 확보 나선 엔비디아.. 삼성·SK ‘증설 탄력’

엔비디아, 반도체 계약규모 386조 삼전, HBM 대응 생산기반 확보 하늉, 국내외 AI메모리 기반 확충

엔비디아가 향후 필요한 메모리와 인공지능(AI) 반도체 생산 물량을 미리 확보하기 위한 계약규모를 한 분기 만에 두 배 이상 늘리면서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의 증설 투자에도 힘이 실리고 있다. 계약 규모가 386조원에 달하고 증가세를 메모리 조달이 주도하면서 국내 양사의 고대역폭메모리(HBM) 생산 확대에도 속도가 붙을 전망이다. <관련기사 3면>
◆엔비디아, 13분기 연속 최대 매출... 내년 70% 성장

엔비디아가 26일(현지시간) 발표한 회계연도 2027년 2분기(5~7월) 공시에 따르

면 데이터센터 시스템에 필요한 메모리 조달과 반도체 생산시설 관련 계약 규모는 2790억달러(약 386조원)로 직전 분기 1190억달러(약 165조원)보다 두 배 이상 증가했다. 한 분기 사이 1600억달러(약 221조원) 늘었는데 주로 메모리 조달 확대가 이끌었다. 이에 엔비디아는 수년 뒤 필요한 물량까지 계약하며 AI 수요 증가에 대비하고 있다.

가파른 AI 수요는 실적으로도 확인됐다. 2분기 매출은 962억2000만달러(약 133조3000억원)로, 전년 동기보다 106% 늘어나며 13개 분기 연속 최대치를 갈아치웠다. 엔비디아는 2028 회계연도에도 약 70%의 매출 성장을 예상했다.

젠슨황 엔비디아 최고경영자(CEO)는 이날 “AI 인프라 구축이 전속력으로 진행되고 있다”고 밝혔다.

◆삼성 평택·아산·천안 HBM 생산 확대 AI 반도체 수요가 늘면서 HBM과 서버용 D램 수요도 함께 증가하고 있다. 신규 반도체 공장이 양산에 들어가기까지 수년이 걸리는 만큼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도 중장기 수요에 맞춰 생산기반을 확충하고 있다.

삼성전자는 평택과 충남 아산 온양·천안을 중심으로 HBM 생산기반을 확대하고 있다. 평택에서는 HBM에 들어가는 첨단 D램 생산능력을 늘리고 아산 온양사업장에는 HBM 팹(반도체 생산 공장) 5개 라인을 구축한다. 천안에서도 HBM 대응 설비를 증설·현대화할 계획이다.

생산시설 확대와 함께 차세대 제품 공급도 늘리고 있다. 삼성전자는 HBM4 공급을 확대하고 주요 고객사에 HBM4E 샘플

플을 공급하고 있다. DDR5(5세대 D램 규격)와 소켓2(저전력 서버용 D램 모듈) 등 AI 데이터센터용 고부가 제품 판매도 늘릴 방침이다.

◆SK하이닉스, 용인 증설 이어 美 거점 구축

SK하이닉스도 국내외 AI 메모리 생산기반을 확충하고 있다. 회사는 이탈리아 용인 반도체 클러스터 Y2와 청주 M17에 총 54조3000억원을 투자하기로 했다. 용인 Y2에는 35조2000억원을 투입해 HBM을 비롯한 차세대 D램 생산기반을 구축하고 청주 M17에는 19조1000억원을 들여 낸드플래시(전원이 꺼져도 데이터를 보관하는 메모리) 생산능력을 확대한다. <2면에 계속>

/구남영 기자

koogija_tea@metroseoul.co.kr



metro



네팔 ‘기습 대홍수’ 직원 9명 연락두절 두산·남동발전 비상

네팔 중북부 히말라야 산악지대를 강타한 기습 대홍수로 현지 수력발전소 건설 현장에 투입된 한국인 직원 9명이 연락 두절되고 10명이 고립되는 대형 재난이 발생했다. 정부와 관련 기업들은 즉시 현지에 대응팀을 파견하고 대통령 주재 긴급 점검회의를 소집하는 등 총력 구조 체제에 돌입했다. <관련기사 6면>

27일 외교부 및 관련 업계에 따르면, 지난 26일 네팔 수도 카트만두에서 북쪽으로 약 70km 떨어진 ‘아퍼 트리술리-1(UT-1)’ 수력발전소 건설 현장에 산사태를 동반한 대홍수가 일어났었다.

두산에너지빌 6명, 남동발전 3명 기습폭우·빙하호 폭발 겹쳐 히말라야서 ‘복합 자연재해’

이번 사고로 현장에 체류 중이던 두산 에너지빌리티 직원 6명과 한국남동발전 직원 3명 등 한국인 총 9명의 생사가 확인되지 않고 있다. 당초 두산에너지빌리티 소속 연락두절 인원은 5명으로 알려졌다. 현지 채굴된 한국·네팔 이중국적 직원 1명이 추가 확인되며 6명으로 늘었다. 별도로 현장에 있던 두산에너지빌리티 직원 10명은 외국인 직원 약 200명과 함께 안전지대로 대피해 안전에는 이상이 없으나, 통신과 도로가 끊겨 고립된 상태다.

기상학자 및 현지 언론 분석에 따르면, 이번 참사는 몬순 철 막바지 기습 폭우와 히말라야 빙하호 폭발(GLOF)이 동시에 겹친 ‘복합 자연재해’로 파악된다. 지구 온난화로 상류 빙하 제방이 약화된 상태에서 집중호우가 쏟아지며 무너져 내렸고, 토석류가 계곡을 따라 단시간에 현장을 덮쳤다. UT-1 프로젝트는 완공 시 네 팔 전체 전력의 약 20%를 담당하는 6억 4700만 달러(한화 약 8900억 원) 규모의 핵심 국가 인프라 사업이다. 올해 말 준공 및 상업운전을 앞두고 있었으나 이번 사고로 사업 차질이 불가피해졌다.

<3면에 계속>

/세종=한용수 기자 hys@



metro



네팔 홍수 피해자 구조

26일(현지 시간) 네팔 누와코트 지역에서 돌발 홍수가 발생했다. 구조대원들이 돌발 홍수 피해자를 굴착기에 태워 안전한 곳으로 옮기고 있다.

/AP·뉴시스

기준금리 2회 연속 인상... “물가 오름세 선제 대응”

한은, 연 2.75%→3.00%로 금통위원 7명 중 6명 ‘인상 찬성’ 올해 성장률 전망치 3.3%로 높여

한국은행이 물가 오름세의 확산을 선제적으로 막기 위해 기준금리를 연 3.00%로 올렸다. 반도체 수출·투자 호조에 내수 회복이 더해져 성장 전망이 크게 높아진 데다 수도권 집값과 가계부채 위험도 이어진 데 따른 두 차례 연속 인상이다. <관련기사 3면>

한은 금융통화위원회는 27일 통화정책 방향 결정회의를 열고 기준금리를 연 2.75%에서 3.00%로 0.25포인트(p) 인상

했다. 지난 7월 기준금리를 2.50%에서 2.75%로 올려 3년 6개월 만에 인상을 재개한 데 이어 다시 금리를 높였다.

금통위는 “국내경제는 수출 호조와 내수 회복에 힘입어 예상보다 높은 성장세를 이어가는 가운데 물가상승률은 상당 기간 목표수준을 상회할 것으로 전망된다”며 “선제적 대응을 통해 물가 오름세의 확산을 방지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밝혔다.

이번 결정에는 금통위원 7명 가운데 6명이 찬성했다. 황건일 위원은 기준금리를 연 2.75%로 유지해야 한다는 소수의견을 냈다. 지난 7월 인상 결정은 금통위

원 전원 찬성이었다.

한은은 반도체 경기 호조로 수출과 투자의 높은 증가세가 지속되고 소득 여건 개선에 힘입어 소비 회복세도 확대될 것으로 내다봤다. 이에 따라 올해 성장률 전망치를 종전 2.6%에서 3.3%로, 내년 전망치를 2.1%에서 2.9%로 각각 높였다.

지난 7월 소비자물가 상승률은 2.8%로 낮아졌지만 근원물가 상승률은 개인서비스와 내구재 가격 오름세가 확대되면서 2.6%로 높아졌다. 올해와 내년 소비자물가 상승률 전망치는 각각 2.7%, 2.3%로 유지한 반면 근원물가 전망치는 두 해 모두 2.5%로 상향했다.

금융안정 측면에서는 수도권 주택가격이 높은 오름세를 지속하고 가계대출도 상당폭 증가한 점을 위험 요인으로 꼽았다. 금통위는 물가·경기 흐름과 금융안정 상황을 점검하면서 추가 인상의 시기와 속도를 결정하겠다고 밝혔다.

추가 인상 가능성도 열렸다. 금통위원들이 제시한 6개월 후 조건부 금리전망 21개 가운데 연 3.25%가 10개로 가장 많았고 3.50%가 6개, 현수준인 3.00%가 5개였다. 현재보다 낮은 금리를 가리킨 점은 하나도 없었다.

/김주형 기자 gh471@



metro

메트로 한줄뉴스



▲한 총리 “공공데이터, 국민에 투명하게 돌려드려야...안전한 개방 적극 고민할 때” /사진 뉴시스
▲장미란씨 사망, 범죄 가능성 낮아지만...전문가 “자살 단정 일러”

▲민주당 41%·국민의힘 20%...민주 1%p↑·국힘 3%p↓
▲국힘 윤리위원, ‘비밀유지 위반’ 윤민우 위원장 등 해임요구서 제출

▲정동영 “30년새 북 핵능력 10만배...완전한 비핵화 접근 어려워”
▲‘병역거부자 채용금지·해고법’ 2028년 2월까지 적용...“헌법불합치”